

#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2년 5월

## 전문가 기고

탄소중립을 통해 우리가 미래에 준비해야 하는 것

##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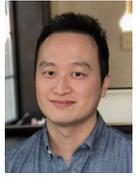
생물다양성협약과 국내외 정책 동향

## ESG 동향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 주요 통계

# 탄소중립을 통해 우리가 미래에 준비해야 하는 것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 실장  
신동원

탄소중립은 인류생존의 한계점인 지구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낮추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후 수많은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최근에는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 외에도 탄소중립은 기업 경영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애플, 구글, 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자발적 RE100 참여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협력업체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금융에서 ESG 등 경영 전략에 대한 새로운 평가 잣대에서도 드러난다.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이 최우선 투자 고려 요소로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을 제시하며 기업을 평가하고,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들도 탈석탄 투자를 선언하는 등 국제 금융은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투자 우선순위에 두게 되었다.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국내외 기업 모두 상당한 부담요소이다.

국가 뿐 아니라 기업들의 전략에서도 탄소중립이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두가지 특징 - 미래에 대한 시장 전망과 그 패러다임 변화 - 에 기인한다. 최근의 변화로 미루어보자면, 탄소중립과 연계된 세계 경제의 가치 사슬(Value Chain) 변화를 기업과 자본은 이미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 친환경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로 인해 더는 친환경에너지 개발 투자수익은 과거 손익계산법을 따르지 않는다. 경제성에 의존한 화석연료는 투자에서 더는 매력적이지 않고 지속되기 어렵다. 선진국에서는 친환경에너지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혁신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시장 창출과 지배력 선점 차원에서 더 낫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세계적 자본은 앞으로 더욱 심화되어가는 기후위기시대에서 미래 에너지 기술 보유가 에너지 공급 잠재력 확보와 에너지 자급과 안보를 가능케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와 기업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GDP는 증가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하는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간 탈동조화(decoupling) 하는 것이 성장전략으로 중요하다. 과거 경제시스템에서는 에너지소비량을 감소하는 것은 곧 성장의 억제를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탈동조화가 실현되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ESG라는 형태로 환경을 위해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거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도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한다.

이처럼 미래투자 방향은 국가와 기업, 투자자의 변화를 통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에서는 다소 불확실성이 커 보인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 기존 산업구조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미래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옵션이 있다. 최대한 기존 산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시장의 변화를 막는 전략, 천천히 시장의 변화에 뒤늦게 쫓아가는 전략, 아니면 기술적 우위를 통해 오히려 시장의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이다. 단기적으로는 과거의 선례가 있었던 앞의 두 전략이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변화들, 국제적·외교적 압박이나, 미래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들 속에서 과거 경제체제를 유지하며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기는 좀처럼 어려워 보인다. 소극적 대응 전략보다는 미래 시장의 변화를 선도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기존의 에너지 체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수소연료 전지나 ESS, SMR, CCUS 등 차세대 에너지기술 및 탈탄소 기술을 국가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인수위에서 발표한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전략에서도 산업단지의 친환경 전환,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그린 전환, 탄소중립과 연계된 에너지 분야 신기술과 시장 창출, 에너지 신산업과 융합 바이오 등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첨단산업 발굴 및 육성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관건이 방향보다 속도라는 점에서 보자면, 그 계획과 내용이 포함된 로드맵이 중요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탄소중립 체제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자본이 그 변화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국가가 이를 뒷받침하여 친환경 혁신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

# 생물다양성협약과 국내외 정책 동향



김예나 연구원

오는 3분기로 예정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2부 회의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인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될 예정이다. 주요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①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은 1993년 12월 발효된 국제협약이다. 협약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유전자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사국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지난해 10월 제15차 총회(COP15) 1부 회의가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었고, 오는 3분기에 2부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COP15 1부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쿤밍 선언'을 채택했다. 쿤밍 선언은 2030년까지의 생물다양성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GBF)'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생물다양성 주류화,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의 개발, 지속가능 이용, 개도국 지원 등 17가지 사항을 약속했다. 쿤밍 선언의 주요 내용은 COP15 2부 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인 포스트-2020 GBF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포스트-2020 GBF는 2050년 비전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삶(Living in harmony with nature)'을 설정하고, 자연생태계 최소 15% 확대, 멸종위기종 멸종률 10배 감소, 멸종리스크 50% 감소, 유전자 다양성 보호 및 유지, 유전자원 이익 공유, 재정 및 이행수단 격차 축소 등을 목표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30년까지의 실천목표로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 공유, ▲이행과 주류화를 위한 방법 등의 부문에서 21가지 목표를 제안할 예정이다.

실천목표에는 훼손된 담수·해양·육지 생태계의 최소 20% 복원 보장, 침입 외래종 유입 및 정착률 감소, 살생물제 2/3 감소, 도시와 인구 밀집 지역에 녹지 및 수변공간 확대, 식량 및 자원 과소비에 의한 낭비 50% 감소,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 매년 최소 5,000억 달러 절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주요내용

2050 Vision	자연과 조화로운 삶(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2050 Goals	▲자연생태계 최소 15% 증대 ▲멸종위기종 멸종률 10배 감소▲멸종리스크 반감 ▲유전자 다양성 보호 및 유지(최소 90%)▲자연이 주는 혜택 가치화 ▲유전자원 이익 공유 ▲재정 및 이행수단 격차 축소
2030 Targets	<p><b>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8개 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훼손된 담수, 해양 및 육지 생태계 최소 20% 복원 보장</li> <li>· 침입외래종 유입 및 정착률 예방 및 감소 · 환경 유실영향 50%와 살생물제 2/3 이상 감소 등</li> </ul> <p><b>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5개 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와 인구 밀집 지역에 녹지 및 수변 공간의 면적·접근성·이익 증대 등</li> </ul> <p><b>이행과 주류화를 위한 방법(8개 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 및 자원 과소비에 의한 낭비 50% 감소</li> <li>·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모든 보조금 매년 최소 5,000억 달러 절감 등</li> </ul>

※ 자료 : 환경부('21.10월까지의 협상 결과)

## ② 국내외 정책 동향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자연자본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인 TNFD(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가 출범하면서 관련 정보 공개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TNFD는 지난 3월 초안을 발표했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3년 9월에 최종 공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2020년 5월 '2030 EU 생물다양성전략'을 채택했다. 해당 전략은 2020년 유럽 그린딜의 세부 내용으로 유럽과 전 세계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행동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U는 생물다양성전략과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호와 지속가능한 음식 체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 등 환경단체들이 명확한 목표 설정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 부과 등을 주장하고 있고, 유럽의회는 2022년말까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법률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EU에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미국은 생물다양성협약 미가입 국가이지만 자체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2014년부터 생물다양성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30%의 육지와 해양을 보호한다는 '30x30 Vision'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은 1994년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하고 당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5년마다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이 적용되고 있다.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5대 전략과 19개의 실천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5대 전략은 ▲생물다양성 주류화,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생물다양성 이익공유 및 지속가능한 이용, ▲이행력 증진기반 마련 등이다.

###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전략 및 실천목표

전략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전략 및 실천목표	
생물다양성 주류화	① 대국민 인식제고 ③ 유익한 유인조치 확대	② 전략계획에 생물다양성 가치 반영 ④ 생물다양성 친화적 생산·소비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관리	① 서식지 손실저감 ③ 교란종 침입예방 및 통제	② 취약 생태계 압력 감소 ④ 오염물질 저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① 보호지역 확대·관리 강화 ③ 멸종위기종·고유종 보호	② 생태계 복원 ④ 유전적 다양성 증진
생물다양성 이익공유 및 지속가능한 이용	① 생태계서비스 기반 구축 ③ 나고야의정서 이행	② 지속가능한 생태지원 활용 활성화 ④ 지속가능한 농·임·수산업
이행력 증진기반 마련	① 국제협력 강화 ③ 과학적 지식·정책협력 강화	② 전통지식의 보전·활용

※ 자료 : 환경부(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김선엽 연구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IS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기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글로벌 기준 마련을 목표로 설립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난 3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공개초안은 ①지속가능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IFRS S1)과 ②기후 관련 공시(IFRS S2) 두 가지이다.

일반 요구사항(IFRS S1)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위한 핵심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기업의 고려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지배구조는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에 관한 정보이다. 전략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위험관리는 기업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관리 프로세스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지표와 목표는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의 설정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이다.

기후 관련 공시(IFRS S2) 공개초안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공개초안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권고안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정보 공개 기준을 통합한 것이다.

IFRS S2 공개초안은 일반 요구사항과 동일하게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이 기후와 관련된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 기회에 대한 정보의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SSB는 오는 7월 29일을 기한으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시기준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국가가 의무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지만 관련 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핵심요소	IFRS S1	IFRS S2
지배구조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 및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배구조 관련 정보</li> <li>- 지배구조 절차, 통제 및 과정에 대한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배구조</li> <li>-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li> </ul>
전략 (Strate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대응전략</li> <li>위험 및 기회가 전략 계획에 통합되거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변화가 사업모형, 전략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li> <li>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대한 정보</li> </ul>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과정</li> <li>해당 과정이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 절차에 통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과정이 전반적인 위험 관리 과정에 어떻게 통합되는 지와 통합되는 정도에 관한 정보</li> </ul>
지표 및 목표 (Metrics and targ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측정, 감독 및 관리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와 목표</li> </ul>

※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 ESG 통계 지표

2022년 5월 1일 기준

## 1. ESG 금융

###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1.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1월	2월	3월	4월
녹색채권	122	131	135	144	145	151	162	172	183
사회적채권	689	710	747	765	788	794	820	835	871
지속가능채권	161	178	181	199	216	230	233	237	246

###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단위 : 천억 원)

	'21.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1월	2월	3월	4월
녹색채권	128	139	141	148	148	156	168	173	183
사회적채권	1,125	1,166	1,214	1,247	1,273	1,273	1,306	1,331	1,362
지속가능채권	140	153	154	165	180	175	181	182	186

## 2. ESG 평가

### 국내기업 MSCI ESG 평가

(단위 : 개)

	AAA	AA	A	BBB	BB	B	CCC
2022	1	8	20	25	26	26	11
2021	1	8	19	23	26	25	9
2020	0	3	15	25	24	26	7
2019	0	2	17	18	24	26	10

자료 : KRX ESG포털

## 3. 기타 통계

### 연도별 SASB 공시기준 도입 기업 수

(단위 : 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글로벌기업수	3	9	13	43	136	587	1,378
한국기업수	2	2	4	4	0	16	38

\*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 글로벌 기업수는 한국 기업수 포함

## 2022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금융

2월 | 비재무정보 공개 법제화 및 TCFD 기준 채택  
|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철강

3월 |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및 법제화 동향  
|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식품산업

4월 | ESG위험 방지를 위한 Taxonomy 법제화  
|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전기·전자·반도체

5월 | 생물다양성협약과 국내외 정책 동향

6월 |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과 배출권거래제

7월 | 여성임원 할당제 시행

8월 | IFRS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9월 |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동향

10월 |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추진 동향

11월 | 한국기업의 ESG 평가 결과와 과제

12월 | COP27 개최 결과 및 평가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 생물다양성협약과 국내외 정책 동향

김예나 연구원  
T. (02)6050-3141 | E. yentakim@korcham.net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김선엽 연구원  
T. (02)6050-3139 | E. sunykim@korcham.net

### ESG 통계 지표

김선엽 연구원  
T. (02)6050-3139 | E. sunykim@korcham.net